



# 독서 기출 지문 모음(교육청, 평가원)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우려고 책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번거로움을 참고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 절대로 성급한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 만약 “꼭 책을 읽어야 해? 지름길이 따로 있는데.”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다. 배우는 자가 도리(道理)를 얻기까지는 여러 겹으로 포장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 곧바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고, 또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아 가야 한다. 겹을 다 벗겨 내면 비로소 살이 보이고 살을 발라내고 나면 뼈가 보이며, 뼈가 다 드러나면 그제야 골수가 보이는 것이다. 거친 마음과 허황된 마음을 품는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독서란 비유하자면 집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만약 밖에서 집의 외양을 보고는 문득 ‘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집을 알 연고가 없게 된다. 모름지기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보고서 이 집은 몇 칸 집이며 몇 개의 창살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

(중략)

사람들은 “독서는 마땅히 조용히 완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다. 만약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급히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놓아 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 만약 하루 종일 배회하면서 ‘조용하다’고 말한다면 공부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 약 달이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모름지기 쉼 불로 달인 다음에 약한 불로 달여야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배움에는 늙음과 젊음이 같지 않다.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모름지기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 한 권의 책을 읽다가 문득 나중에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가서 이해하여 모름지기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내 지극한 곳까지 궁구하는 것이 좋다.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널리 취해 얻는 것이 많다.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다만 말뜻이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함양해야

한다. 중년이 지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려 들면 안 된다. 단지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고 사색해야 의미가 절로 드러난다.

- 양응수, <독서법>

###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 ②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③ 글을 대충 훑어보지 말고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 ④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한다.

###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민수’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주형 : 민수야, 어제 졸업한 선배가 와서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민수 :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3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것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난 1년에 겨우 2권 읽을까 말까 한데…….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난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기로 했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 100권을 일 년 동안 다 읽을 거야.

- ①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읽어야 해요.
- ② 책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점점 어려운 책으로 순서를 정해 읽는 것이 좋아요.
- ③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만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 ④ 아무리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책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 ⑤ 읽은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지 : 『신비한 뇌』, 『화학의 힘』, 『떠나자 여행』. 이 중 한 권을 후배들에게 소개하는 과제인데, 어떻게 할까? 처음 접하는 책들이니까 일단 훑어보자. (세 권의 목차와 내용을 살펴본 후) 뇌나 화학에 대한 책은 후배들이 읽기 힘든 수준이니, 여행에 대한 책으로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읽을까? 책을 소개해야 하니까 다루고 있는 여행지와 제공하는 정보에 주목해야겠고, 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메모하면서 읽어야겠다. (잠시 책을 읽은 후) 모든 여행지가 같은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네. 여행지가 100곳인데 정보량도 많아. 시간 문제나 과제의 성격을 생각해도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 지금부터는 후배들이 관심을 가질 여행지를 선별해서 읽어야겠다. (한동안 책을 읽은 후) 이제 잘 진행되니, 책 소개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

승수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 권 중 하나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제였지. 보자. 첫 번째 책 제목이 『위험한 사회』, 재밌어 보이네. 이 책으로 결정. (첫 장을 읽으며) ‘전자 판옵티콘’이 여러 번 나오네. 무슨 말이지?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많군.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는 글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더 읽어 보자. (잠시 책을 읽은 후) 판옵티콘의 통제는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판옵티콘’이 또 나왔네. 뜻은 아직 모르겠고 ‘비대칭적 시선은 뭘까?’ ‘체화’도 모르겠고, 갑자기 건축 이야기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니 문제네.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문제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

3. ‘예지’와 ‘승수’의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지’는 후배들의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하였다.
- ② ‘승수’는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③ ‘예지’와 ‘승수’는 모두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④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조정하였다.
- ⑤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기 전에 과제를 분석하고 읽기 계획을 세웠다.

4. ㉠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론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어휘나 배경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 ② 읽기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활동이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비판해 볼 필요가 있어.
- ③ 책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 ④ 책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예측해 보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 ⑤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여 의미를 정교화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서를 할 때에는 결코 의문만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읽어가도록 한다. 그리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글에만 의거하지 말고 혹 일을 했던 경험으로 깨닫기도 하고 혹 노니는 중에 구하기도 하는 등, 무릇 다닐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수시로 궁구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또 설사 통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스스로 먼저 궁구한 후에 남에게 묻는다면 말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 있다.

독서를 할 때 목소리만 높여 허세를 부리거나, 어지럽게 글을 읽고, 억지로 자구를 뽑아내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의문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대답하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고 돌아보지 않으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을 구하는 데에 뜻이 없는 자이니 더불어 학문을 할 수 없다. (중략)

나는 일찍이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본다.[以意逆志]”라고 한 맹자의 말을 글 읽는 비결로 삼았다.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해 두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해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곳을 할 때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기가 모른던 것을 환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옛사람의 문장에 기대거나 옛사람의 목은 자취를 좇지 않고 변화시켜 근본을 찬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은 뒤에야 비로소 오묘한 이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홍대용, <매헌(梅軒)에게 씀>

5. 위 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취업이나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할 때에 그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여 읽는다. 또 새로 구입한 전자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작동하기도 한다. 이로 보아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①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②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군.
- ③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군.

6.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도록 해야 한다.
- ②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한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읽어야 한다.
- ③ 정신을 가다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릇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며, 공경히 책을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정순한 생각으로 익숙히 읽고 깊게 생각하여 깊은 의취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하니,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본받지 않아서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먼저 『소학』을 읽어서, 아버지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도리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익혀서 그것을 힘써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학』 및 『훈문』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하나 하나 참으로 알아서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상의 오서와 오경을 돌려가며 익숙히 읽음에, 이해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날마다 밝아지게 하고, 송나라의 선현들이 지은 책인 『근사록』, 『가례』,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語類) 및 기타 성리설 같은 것을, 마땅히 틈틈이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남은 여가에 또한 역사책을 읽어 고금을 통하고 사물의 변화에 통달해서 식견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이라면 잠시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

대체로 책을 읽음에, 반드시 한 책을 숙독하고 뜻과 취지를 모두 깨달아서 관통해서 의심을 없앤 다음에, 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이 읽기를 탐하고 얻기를 힘써서 조금하 게 섭렵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이, <격몽요결>

7.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에 유용한 실용 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지만 이런 독서는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이 펼쳐진 대하소설을 찾아 읽었다. 대하소설을 읽으니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을 이해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① A는 B에 비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를 선호하는군.
- ② A는 B에 비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를 강조하는군.
- ③ A는 B와 달리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독서를 주장하는군.

8.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한다.
- ②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
- ③ 책을 정독하여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 ④ 책에 담긴 뜻과 취지를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 ⑤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 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이황, <독서>

[나]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다가 “조(祖)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祖)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祖)’로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하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전(字典)<sup>1)</sup>을 꺼내 ‘조(祖)’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자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풀이를 살펴 보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줍도록 하여라.

- 정약용, <둘째 아들에게 부침>

[어휘 풀이] 1) 자전: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풀이한 책.

9.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로 읽는다.
- ②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며 읽는다.
- ③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
- ④ 책을 읽다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⑤ 책을 읽다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비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책을 찾아 읽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을 읽으면서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 많이 읽고 뜻을 터득하는 데에만 힘써 자세히 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쫓기듯 바빠 책을 많이 읽는 데에만 버릇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점을 경계하여 위와 같은 버릇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별도로 독서의 체계를 세워 ㉢자신에게 적합한 책 중에서 더욱 절실하고도 긴요한 것을 택해야 한다. 또한 책을 볼 때에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하루에 우선 한두 단락을 보고 그 부분의 이해가 끝나면 다른 단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이 다 끝나거든 다른 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고 기운을 고르게 하여 숙독(熟讀), 숙고(熟考)해서 한 글자 한 구절까지 다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 여러 학자들의 주석(註釋)을 하나하나 독파한 다음, 그들의 ㉤옳고 그름을 비교하여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미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반복 음미하여 그 의미와 이치를 몸으로 체득해야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윤화정(尹和靖)의 문인들이 자기 스승을 칭찬하기를 ‘대단하시다. 성현들의 말씀과 육경(六經)의 내용을 환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터득하시어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시는구나’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글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구절마다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의심이 점차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 전혀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이, <성학집요>

10. ㉠ ~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윗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①
읽기 중	·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 ②
	·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 ③ ·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 ④
읽기 후	·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해야 한다. .... ⑤



▣ 다음은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영수** : 기억과 망각에 대해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이 세 권 중에서 뭘 읽어야 할까? 아무래도 제목으로 봐서는 「망각의 신비」가 재미있을 거 같아. 일단은 목차를 한번 봐야지. 음, 망각 말고도 기억, 뇌의 구조에 대한 소제목도 있네. 아마도 기억과 망각의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할 것 같아. (책을 읽어 나가다) ‘망각’의 원리를 설명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같으니까 간단히 요약해 적어 뒀어. 이렇게 적어 두면 나중에 보고서 쓸 때 기억이 잘 날거야. (책을 모두 읽은 후)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봐야겠어.

**진호** : ‘나의 관심사’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야 해서 「풍속화 바로 보기」란 책을 샀는데, 제목을 보니 이 책이라면 풍속화 감상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겠지? 다양한 그림들을 실제로 감상한 내용도 있을 거야. 예전에 전시회에 가서 풍속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단순한 소재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했었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책을 읽다가) 아, 풍속화는 이렇게 감상하는 거구나. 그리고 인물의 표정이나 소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글에 ‘해학’이나 ‘소박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걸 보니, 이게 이 글의 핵심어인 것 같아. ‘해학’의 뜻을 사전에서 확인해 봤더니 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책을 다 읽은 후) 이제 소개하는 글을 써야지. 음, 뭐라고 쓸까? ㉠아까 어떻게 감상한다고 했지? 그림의 구도에 따라 다르다고 읽은 거 같긴 한데……. 구체적인 감상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

13. ㉠에 대해 ‘영수’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메모를 해 두면 글의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 ② 핵심 단어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어.
- ③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으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 ④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읽으면서 확인하면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 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12. ‘영수’와 ‘진호’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읽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책의 제목이나 목차를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본다.
- ② 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③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따져 가며 읽는다.
- ④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 ⑤ 자신의 독서 과정을 성찰해 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독서할 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 있다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을 하면 남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석하면, ‘앎과 깨달음’이 더욱 자라나서 말과 행동이 두루 통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앎과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은 꼭 막히게 되어, 얻었다 해도 반드시 다시 잃게 마련이다.

성현(聖賢)들은 도리를 닦고 언론과 법규를 바로 세워 천하와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얻고 난 다음에는 또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장차 도리를 전하고 말을 풀어 놓아 ‘앎과 깨달음’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을 두루 통하게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치와 뜻은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한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두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지식으로 미루어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깨달음을 발휘해 말을 가리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 이는 성현의 마음이고 학문과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 윤희, <독서기서(讀書記序)>

[나] 독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사물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마땅히 자신이 행할 도리가 분명히 나타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천하의 도(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옛 성인과 현자가 마음을 쓴 발자취와 세상만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및 경계해야 할 내용이 모두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해야 한다.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뜻을 다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고하고,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글과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지 입으로만 읽고 마음속으로 얻지 못하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슨 이로움과 유익함이 있겠는가?

- 이이, <독서(讀書)>

14. [가]와 [나]의 글쓰기가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독서의 목적’은?

- ①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
- ②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 ④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 ⑤ 글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

15. [가], [나]를 읽고 ‘독서’에 대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독서를 통해 ‘앎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①
- 독서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 ②
- 온 마음을 쏟아 독서에 집중해야 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 ③
- 독서할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 ④
-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희들이 10년 동안 공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환으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느라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구나. 그러나 또한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겠는가?

나 또한 어렸을 때 과거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너희들처럼 그럭저럭 세월만 보낸 적이 있다. 그러다가 경신년 겨울에, 『맹자』 한 질을 지니고 관악산에 들어갔다. 수개월 동안 20번에 걸쳐서 『맹자』를 읽고 나서야 겨우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 앉아 일절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맹자』의 ‘양혜왕장’부터 ‘진심장’에 이르도록 모두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 그 책에 담긴 뜻과 의미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곳저곳 마음이 가는 곳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이듬해 안동 하회 마을에 내려가 지내면서 『춘추』를 30여 번 읽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문장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 과거에 급제했다. 지금 그때를 돌아켜보면, 세월의 공력에 더해 깨닫고 얻은 것이 없다. 그때 좀 더 공부해서 사서(四書)를 100여 번 읽었더라면, 내 학문의 성취가 오늘날처럼 보잘것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사서를 반드시 읽고 또 읽으라고 말하고 싶다.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마치 저갯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같아서, 오로지 빨리 성공에 접근하고 성공을 구하는 기술만 찾는다. 반면 옛 성현의 글이 담긴 책들은 높다높은 다락에 묶어 처박아 두고, 매일같이 영약하게 남의 비위나 맞추는 글을 찾는다. 그리고 그 말을 도둑질해 시험 감독관의 눈에 띄도록 글을 지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짓은 교묘한 방법으로 벼슬하는 자들이 삼을 수 있는 수단이지, 너희들처럼 어리석고 둔하거나 명예를 다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치욕스럽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대체로 학문과 독서의 성취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고, 그것으로 성공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오로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다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고,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 류성룡, <여러 아이들에게 보냄[奇諸兒]>

16. 독서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이 아닌 것은?

- ① 옛 성현의 글은 꾸준히 읽어야 한다.
- ② 독서를 통해 학문적 성취에 이를 수 있다.
- ③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젊은 시절의 독서 경험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⑤ 글을 외우기만 하는 것은 뜻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17.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저는 올해 환경 동아리 활동의 하나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 문제에 관한 책을 몇 권 골라 읽고 독서 모임을 했어요. 여럿이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도 이해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발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처음에 환경 문제에 별반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독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누구보다 열성적인 환경운동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 ① <보기>는 윗글에 비해 독서를 통한 글쓴이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 ② <보기>는 윗글과 달리 타인과 교감하며 읽는 공동체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윗글은 <보기>에 비해 여가 활용 수단으로서의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윗글은 <보기>에 비해 독서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다음은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p><b>과제</b> :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소비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그것의 구체적 사례를 찾아서 발표하기</p>
<p><b>수진</b> : (책의 목차를 살핀 후) ‘어플루엔자’, ‘디드로 효과’, ‘베블런 효과’……. 모두 생소한 용어들이네. 우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뜻부터 알아보자. (한참 인터넷을 검색하고 살핀 후) ‘베블런 효과’가 재밌겠다. (책을 읽다가) ‘비싸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고? 무슨 뜻이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인가? 이 부분을 읽어보자. (한참 책을 읽은 후) 내 예상과 다른데……. ‘베블런 효과’는 부자들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비판하면서 생긴 말이군.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려는 허영심 때문에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군. 이것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될까? (다시 책을 읽다가) 부자들의 소비 행태가 일반인에게도 확산되었구나. 그렇다면 ‘베블런 효과’는 현대인들의 ‘명품 열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어. 요즘 친구들이 옷이나 신발을 고를 때 무조건 비싼 상품을 선호하는 것을 구체적 사례로 활용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부터 발표 계획을 세워볼까?</p>
<p><b>영수</b> : 제목은 쉬운 것 같더니, 목차는 낯선 용어들로 가득하네. 전부 다 읽을 수도 없고 어찌지? 우선 대충 훑어보고 어떻게 할지 정하자. (소제목을 중심으로 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 이렇게 대충 훑어봐서는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지 정하지 못하겠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쇼핑’과 관련된 부분이 낯겠다. (잠시 읽더니) ‘어플루엔자’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부자병’으로 전염성이 강하다.’고? 이것도 쉽지는 않네. 안 되겠다. 먼저 이 부분에 나오는 낯선 용어부터 찾아 정리하자. 용어부터 알아야 글을 이해할 수 있겠어. (사전을 찾으며 용어를 이해한 후) 이제 ‘어플루엔자’가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네. ㉠그럼 이 부분을 읽고 중심 내용만 요약하면 과제는 끝나는군.</p>

18. ‘수진’과 ‘영수’의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진’은 글을 읽기 전에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부터 하였다.
- ② ‘수진’은 글을 읽어가는데 도중에 글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활동을 하였다.
- ③ ‘영수’는 글을 읽기 전에 관련된 배경 지식과 경험부터 활성화하였다.
- ④ ‘영수’는 글을 읽는 중에 자신의 읽기 방법을 순간순간 바꾸어 나갔다.
- ⑤ ‘수진’과 ‘영수’는 모두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읽었다.

19. ㉠에 대해 ‘수진’이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① 수행할 과제를 다시 확인하여 글을 읽는 목적부터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 ② 매체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다르니까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매체의 특성부터 살필 필요가 있어.
- ③ 중심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르는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
- ④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
- ⑤ 읽기는 능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중심 내용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필 의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읽기 전]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공정 무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공정 무역이라는 게 제3세계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제값에 사는 거라는 정도는 아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일단 공정 무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적어 놓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봐야겠어.

[읽기 중]

궁금한 것들을 미리 적어 두었더니 좀 더 책을 꼼꼼히 읽게 되네. 그런데 공정 무역을 하는 기업이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 일단 좀더 읽어 봐야겠어.

(좀 더 읽은 후) 여기까지 읽으니까 조금 전의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글쓴이가 공정 무역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 무역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탓한 건 문제가 있어. 이윤 창출은 기업들의 당연한 목표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의 윤리 의식이나 소비 행위도 공정 무역 확대에 영향을 주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공정 무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어. 공정 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건 분명하니까.

[읽기 후]

공정 무역이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았어. 이런 생각과 중요한 내용들을 독서 기록장에 간단히 정리해 봐야겠어. 그리고 나부터도 공정 무역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20. 위 학생의 각 단계별 독서 방법 및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독서 방법 및 활동
읽기 전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①
	화제에 관한 자신의 의문점을 메모해 둔다. .....②
읽기 중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③
	글의 일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읽는다. .....④
읽기 후	글을 통해 알게 된 바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다. .....⑤

21. <보기>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창조적 독해는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 ① 공정 무역의 개념과 효과 등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여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② 공정 무역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읽기 전략들이 적절했는지 점검한다.
- ③ 글을 읽어가면서 무역과 관련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가며 이해한다.
- ④ 목차와 소제목을 미리 훑어보고 공정 무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짐작한다.
- ⑤ 공정 무역은 글쓴이가 말한 가치 외에, 인류애와 같은 가치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구성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양계(養鷄)<sup>1)</sup>를 한다고 들었는데 양계란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도 품위 있는 것과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農書)를 잘 읽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아라. 색깔을 나누어 길러도 보고, 닭이 앉는 화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살찌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또 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로 지어보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다. 만약 이(利)만 보고 의(義)를 보지 못하며 가축을 기를 줄만 알지 그 취미는 모르면서, 애쓰고 억지 쓰면서 이웃의 채소가 꾸는 사람들과 아침저녁으로 다투기만 한다면 이것은 서너 집 사는 산골의 못난 사람들이 하는 양계다. 너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미 닭을 기르고 있으니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책 중에서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 내어 차례로 정리하여 ‘계경(鷄經)’ 같은 책을 하나 만든다면 육우의 『다경(茶經)』, 혜풍 유득공의 『연경(煙經)』과 같은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속사(俗事)에 종사하면서도 선비의 깨끗한 취미를 갖고 지내려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중략)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 많은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은 책의 의리(義理)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

예컨대 자객전(刺客傳)을 읽을 때 기조취도(既祖就道)<sup>2)</sup>라는 구절을 만나 “조(祖)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면, 선생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사에도 꼭 조(祖)라는 글자를 쓰는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다시 묻고, 선생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집에 돌아와 자서(字書)에서 조(祖)라는 글자의 본뜻을 찾아보고 자서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책을 들추어 그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고찰해 보고 그 근본된 뜻만 아니라 지엽적인 뜻도 뽑아 두고서, 『통전(通典)』이나 『통지(通志)』, 『통고(通考)』 등의 책에서 조제(祖祭)의 예를 모아 책을 만들면 없어지지 않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한 가지도 모르고 지냈던 네가 이때부터는 그 내

력까지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비록 홍유(鴻儒)<sup>3)</sup>라도 조제에 대해서는 너와 경쟁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어휘 풀이] 1) 양계 : 닭을 먹여 기름. 2) 기조취도 : 먼 길을 떠날 때, 길의 신인 노신(路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길을 떠남.

3) 홍유 : 못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름난 유학자

22. 위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서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 ② 글에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의문이 나는 사항은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 ④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활용하여 뜻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⑤ 관심 있는 정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집하며 읽어야 한다.

23.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재원’에게 충고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원: 나는 지난 학기에 ‘○○독서회’가 선정한 ‘우리 고전 100선’을 다 읽었어.

소영: 우와, 대단하다. 그 어려운 책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었지?

재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기면서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니까 금방 읽을 수 있던데.

- ① 실생활에 유용한 독서도 필요하지만 폭넓은 교양을 쌓는 독서가 더욱 중요하다.
- ② 책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고전만을 읽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양서들도 다양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 ④ 특정한 관점만 담긴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균형을 이룬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른 사람이 선정해 놓은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야 한다.



▣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 독서는 글을 매개로 필자와 독자가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이는 시공(時空)과 인종, 국경을 넘어 지식과 문화를 주고받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또한 독서는 글의 의미를 자기 나름으로 구성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생략된 내용이나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 보거나 때오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독서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도 책에 대한 의미 구성 과정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독자 개개인이 가진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경우에 따라 필자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을 통해 독서의 특성 및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군자불기(君子不器)' 이 구절의 의미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릇이란 각기 그 용도가 정해져서 서로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도 쓰고 국그릇으로도 쓴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릇[器]의 의미는 특정한 기능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군자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군자의 품성에 관한 것이며 유가 사상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를 논하면서 바로 이 『논어』 구를 부정적으로 읽음으로써 널리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버의 경우 기(器)는 한마디로 전문성입니다. 베버가 강조하는 직업 윤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문성에 대한 거부가 동양 사회의 비합리성으로 통한다는 것이 베버의 논리입니다. '군자불기(君子不器)'를 전문성과 직업적 윤리의 거부로 이해했습니다. 분업을 거부하였고, 관료주의를 거부하였고,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학적 훈련을 거부하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 사회가 비합리적이며 근대 사회 형성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신영복, '그릇이 되지 말아야', 『강의』 중에서 -

24.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논어』라는 책을 통해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공자와 막스 베버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군.
- ㄴ. 막스 베버는 '군자불기(君子不器)'의 의미를 자신의 배경 지식에 따라 공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했군.
- ㄷ. 막스 베버는 동양 사회의 비합리성이라는 자신의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논어』를 활용하고 있어.
- ㄹ. 막스 베버가 '군자불기(君子不器)'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기(器)'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미를 추론하지 못했기 때문이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5. [A]를 독서의 절차에 따라 읽은 학생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의 절차	학생의 활동 내용
<p><b>읽기 전 활동</b></p> <p>목적 확인하기,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훑어본 다음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기 등</p>	<p>○ 『논어』의 내용은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막스 베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인터넷 검색을 해 봐야겠어. ①</p> <p>○ 필자가 '그릇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의 쓰임이 정해져서 안 된다는 뜻이겠지? ..... ②</p>
<p><b>읽기 중 활동</b></p> <p>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기, 궁금해 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기, 생략된 내용이나 감추어진 의도 등을 추론하면서 읽기 등</p>	<p>○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동양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봐야겠군. ③</p> <p>○ '군자불기'의 구절을 소재로 쓴 이유가 궁금했는데, 동서양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였군. ... ④</p>
<p><b>읽기 후 활동</b></p> <p>중심 내용이나 주제 파악하기,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생각하기, 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방안 생각하기 등</p>	<p>○ 같은 글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군.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⑤</p>



▣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모 형	독서가 글에 제시된 정보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즉, 독서는 단어, 구, 문장 등 작은 단위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여 문단이나 글 전체 등 큰 단위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B 모 형	독서가 독자의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즉, 독자는 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추론하며, 그 예측이나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해 가면서 글을 읽는다.

[나]

연꽃잎은 왜 물에 젖지 않을까? 연꽃잎을 현미경으로 보면 잎 표면이 작은 돌기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이 나노 돌기로 덮여 있어 표면 장력에 관계없이 소수성 [A]을 띤다. 표면의 거칠기가 물방울보다 작아 나노 돌기와 물방울이 닿는 면적이 아주 작으면 소수성이 커진다. 그래서 연꽃잎이 물에 젖지 않는 성질을 ‘초소수성’이라고 한다.

⇒ ㉠학생의 반응: 소수성, 나노, 표면 장력이 무슨 뜻인지 몰라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네.

27. ㉠은 학생이 [나]의 [A]를 읽고 난 후 보인 반응이다. 이 학생에게 해 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반박하면서 읽어 보자.
- ② 글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어휘나 배경 지식을 보완해 보자.
- ③ 글을 읽기 위한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글의 짜임새를 구조화해 보자.
- ④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어 보자.
- ⑤ 글의 전체 내용을 훑어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거나 질문을 만들어 보자.

26. [가]의 두 독서 모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글 중심의 모형이고 B는 독자 중심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 ② A는 전체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세부적인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친다.
- ③ A는 같은 글을 읽은 사람들끼리도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④ B는 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 ⑤ B는 글을 꼼꼼히 읽지 않아도 글의 대략적 의미를 추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분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자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 의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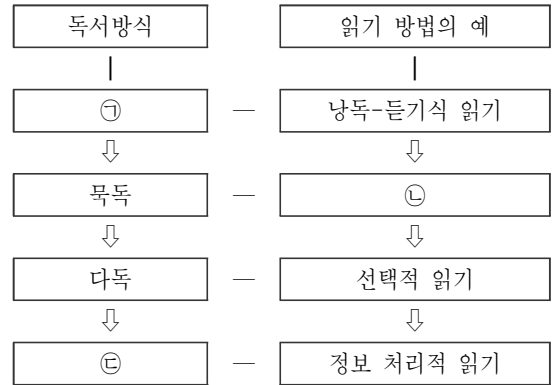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sup>1)</sup>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목독을 도왔다. 목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목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목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어휘 풀이] 1) 필경사 :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8. 위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①	음독	비판적 읽기	검색형 독서
②	음독	분석적 읽기	검색형 독서
③	음독	분산형 읽기	집중형 독서
④	정독	분석적 읽기	집중형 독서
⑤	정독	비판적 읽기	분산형 독서

29.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산형 독서가 나타나기 전, 고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지녔다.
- ② 책자형 책의 여백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재독하는 등 읽기가 끊기가 현상은 낭독의 확산을 도왔다.
- ③ 목독의 시대에는,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낭독할 수 없었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과 관련된 책이 등장했다.
- ④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어형(語形)은 물론 절이나 문장의 배치를 빠르게 인식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⑤ 인쇄술의 보급으로 출판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독자들의 요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판되었다.



30. [A]의 독서 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모티콘, 구어체의 축약 표기, 동영상 텍스트의 출현은 묵독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돼.
- ② 텍스트를 잘라 붙이는 행위를 통해 원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읽기와 쓰기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원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저작권법을 어기기 쉽겠어.
- ④ 기존의 종이 책이나 고문헌 자료들을 전자 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가 확장되었어.
- ⑤ 지금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



[정답 및 해설]

독서 기출 지문 모음(교육청, 평가원)

- 1) ㉠ ㉡ [세부 정보 파악]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 2문단에서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문단에서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1문단에서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4문단 '젊을 때는 ~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와 5문단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 함양해야 한다.'에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2) ㉠ ㉡ [독서 태도 파악] <보기>의 민수는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4문단에서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1~2문단에서 도리(道理)를 얻기까지 세밀하게,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글쓴이는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는 것보다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할 수 있다. ㉢ ㉣ 순서를 정해 읽기, ㉤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기, ㉥ 실생활에 적용하며 읽기,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기 등은 글쓴이가 강조하는 독서 태도와 관련이 없다.
- 3) ㉠ ㉡ [독서 방법 이해] ㉢ 독서의 수행 과정에서 추론적 독해를 할 때, 독서의 목적, 독자의 배경 지식, 독서의 상황 등을 활용하여 읽은 내용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는 재구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지'와 '승수'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 '예지'가 '뇌나 화학에 대한 책은 후배들이 읽기 힘든 수준이니, 여행에 대한 책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후배들의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한 것이다. ㉥ '승수'는 '무슨 말이지?',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많군', '뜻은 아직 모르겠고' 등 스스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다. ㉦ '예지'는 '지금부터는 후배들이 관심을 가질 여행지를 선별해서 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읽기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승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읽어 가다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 '예지'는 책을 후배들에게 소개한다는 과제를 분석하고 나서 세 권의 책 중에서 후배들이 읽기 쉬운 책을 선정해서 읽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 '승수'는 단순하게 첫 책부터 읽기를 시작하고 있다.
- 4) ㉠ ㉡ [문제 해결 독서] ㉢ '승수'는 현재 독서 수행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어나 문장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적인 독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나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승수'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 ㉤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독서는 '추론적 독해' 과정으로 글 안에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승수'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승수'는 현재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려고 했지만 세부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글의 주제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뒷부분을 예측하는 독서는 '추론적 독해' 과정인데, '승수'는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예측하며 읽기를 통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는 읽기는 '감상적 독해' 과정인데, 이는 글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반응할 때 가능한 독해이다. 현재 '승수'는 기본적인 독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5) ㉠ ㉡ [독서의 태도 비교] ㉢ 이 문항은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독서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야함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이 글은 학문 수양을 위한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보기>는 취업, 시험, 면접에 관련된 책이나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등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B(<보기>의 필자)는 A(이 글의 필자)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 A(이 글의 필자)는 학문 수양을 위한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태도를 밝히고 있는데 비해, B(<보기>의 필자)는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따른 독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A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A는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태도를 밝힌데 비해, B는 취업, 시험 면접 등과 관련된 책이나 전자 제품 사용 설명서 등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독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A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A는 학문 수양을 위한 독서에 대해 밝힌데 비해, B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A는 궁구하여 통하는 독서,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독서에 대해 밝힌데 비해, B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독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 ㉡ [독서의 전략 이해] ㉢ 이 문항은 글쓴이가 이 글에서 밝힌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하는 독서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의문만 일으키려고 하지는 안 되고, 의문이 생기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일부러 질문을 만들면서 하는 독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 1문단의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구하도록 한다. ~수시로 궁구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에서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 1문단의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읽어 가도록 한다'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 3문단의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쳐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에서 '옛사람의 뜻'은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 3문단의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해 두었다'와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에서 '글의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 7) ㉠ ㉡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의 필자는 실용 도서와 대화소설 등 회사 생활에 유용한 책을 찾아 읽는다. 따라서 정답은 ㉣번이다.
- 8) ㉠ ㉡ [독서 전략 파악하기] ㉢은 3문단의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은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통해, ③은 3문단에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것을 통해, ④는 4문단에 '책을 속독하고 뜻과 취지를 깨달아서'를 통해, ⑤는 1문단에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온전한 마음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독서 전략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②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9) **답 ③**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가]에서는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것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알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답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읽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다. ② [가]에서는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성인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고 있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나]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는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독서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비판의 근거를 찾으라는 것은 [가], [나] 모두와 맞지 않다.
- 10) **답 ⑤**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를 보면 정약용은 의심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독서 태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옳고 그름을 비교한다는 의심의 과정을 통해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한다는 ㉔의 독서 태도가 가장 유사하고 볼 수 있다.
- 11) **답 ②** [독서의 전략 파악하기] 이 글에는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독서 계획 세우기, 독서 능력에 맞게 분량 조절하기,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 탐색하기,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하기 등의 독서 전략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글의 구조를 통해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2) **답 ①** [읽기 전략 이해하기] 영수와 진호는 모두 책을 읽기에 앞서 책의 제목이나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짐작하고 있다. 영수는 목차와 소제목을 보며 책에서 기억과 망각의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할 것 같다고 짐작하고 있으며, 진호는 책 제목을 보고 풍속화 감상법에 대한 내용, 실제 그림 감상 내용 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 13) **답 ①** [읽기 상황에 대한 조언의 적절성 파악하기] 영수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메모하며 글을 읽는, 읽기 중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진호는 글의 내용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㉑과 같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영수가 ㉑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라는 내용으로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②** 진호는 '해학'이나 '소박함'과 같은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진호는 '해학'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④ 진호는 책을 읽기 전에 풍속화 감상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겠다고 예측한 뒤, 글을 읽으면서 풍속화 감상법을 확인하고 있다. ⑤ 진호는 풍속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 14) **답 ⑤** [옛 선인의 독서 목적을 파악해 독서 문화를 이해한다] [가]의 글쓴이는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기록하면 이치에 두루 통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가]와 [나]의 글쓴이 모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을 독서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답 ⑤** [옛 선인의 독서 전략과 태도를 이해한다] [가]의 글쓴이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독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오면 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독서 과정에서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에 나타나 있어도,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 [나] 모두에 나타나 있지 않다.
- 16) **답 ⑤** [글쓴이의 독서 태도 파악] '나가 젊은 시절 『맹자』를 20번이나 반복하여 읽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더니 그 책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가는 곳'을 발견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글쓴이는 글을 외우는 행동이 독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7) **답 ②** [독서에 관한 상이한 관점 파악] 제시문에는 선인들의 독서 문화가 일부 드러난다. 이 시기 대부분의 독서는 학문의 성취와 인격 수양을 위하여 유교적 경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보기>에서는 환경 동아리라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서 행위에 참여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공동체적 읽기를 수행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읽기의 모습은 제시문에 드러난 독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 18) **답 ③** [독서의 과정과 방법 이해하기] '영수는 글을 읽기 전에 글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글을 읽어가는 도중에 사전을 찾는 활동을 할 뿐이다. **답 ①** '수진'은 글을 읽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용어를 이해하였다. ② '수진'은 글을 읽다가 '무슨 뜻이지?', '이것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될까?'와 같이 질문하기를 하였다. ④ '영수는 읽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서 읽어가는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다가나 사전을 찾아 배경 지식을 강화하는 등으로 읽기 방법을 순간순간 바꾸어 나갔다. ⑤ 두 사람 모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 않고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읽었다.
- 19) **답 ①** [독서의 목적 파악하기] ㉑은 '영수가 자신이 선택한 부분을 읽고 요약만 하면 과제 수행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말이다. 이것은 구체적 사례까지 찾으라는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따라서 독서 목적에 맞게 읽기를 수행하는 '수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수행 과제를 다시 확인하여 독서의 목적을 점검해야 한다는 정도가 적절하다. **답 ②** '책만 매체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영수도 용어를 찾아보고 중심 내용을 요약하려 한다. ④ '영수가 읽은 것은 구체적 사례를 찾는 것이므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⑤ 수행 과제에서 집필 의도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0) **답 ④** [독서 과정에 따른 독서 방법 및 활동 확인하기] 학생은 '읽기 중' 상황에서 글의 내용 중 일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자, 글을 좀 더 읽은 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있다. **답 ①** '읽기 전' 상황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다큐멘터리를 떠올리며 공정 무역의 의미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③ '읽기 중' 상황에서 공정 무역이 확대되지 않는다 해서 글쓴이가 공정 무역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다.





- 21) **답 ⑤** [창조적 독해의 구체적 활동 파악하기] 창조적 독해는 독자가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만의 창조적인 생각과 관점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공정 무역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한 후, 그 외에도 인류애라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구성하는 활동이 적절하다. **답 ①** 글에 제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사실적 독해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답 ②**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독서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상위 인지와 관련된 활동이다. **답 ③**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적 독해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답 ④** 글을 읽기 전에 글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짐작하기 위한 활동이다.
- 22) **답 ④** [자료에 제시된 독서의 방법 파악하기] 이 글에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끌어낼 수 없다. **답 ②** 1문단의 '많은 책 중에서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내어 차례로 정리하여'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답 ③** 3문단의 '조(祖)' 글자의 의미를 선생에게 묻는 예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답 ④** 3문단의 '자서(字書)에서 조(祖)라는 글자의 본뜻을 찾아보고'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답 ⑤** 1문단의 '앞으로 많은 책 중에서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내어'와 3문단의 '조(祖)라는 글자를 자서에서 찾아보고, 『통전(通典)』이나 『통지(通志)』, 『통고(通考)』 등의 책에서 조제(祖祭)의 예를 모아야 한다는 것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 23) **답 ②** [글쓴이의 독서 태도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이 글에서 글쓴이는 마구잡이로 읽어 내리는 태도를 경계하고 어휘 수준까지 세밀하게 고찰하고 연구하여 완전히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보기>의 '재원'에게 충고할 내용으로는 '책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적절하다.
- 24) **답 ③** [독서의 태도 비교하기]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독서가 의사소통 과정, 의미 구성 과정,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글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막스 베버가 '기(器)를 '전문성'으로 해석한 것은 자기 나름의 의미 구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추론하지 못했다는 ㄹ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25) **답 ③** [독서의 전략 이해하기] 학생들이 독서의 일반 절차에 따라 글을 읽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③에 제시된 활동은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 후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이 활동은 '읽기 후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26) **답 ②** [독서의 사고 과정 모형 이해하기] 독서의 사고 과정 모형에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이 있다. A는 상향식 모형으로 글 중심의 모형이고 세부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전체적인 것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②와 같이 전체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27) **답 ②** [독서의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 독서의 과정에서 [나]의 글을 읽은 학생은 어휘의 의미와 과학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가 부족한 어휘나 배경 지식을 보완하여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28) **답 ②** [핵심내용파악] 고대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있어 독자는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보아 글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따라서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12세기 유럽 수도원을 중심으로 목독이 등장하

- 면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고, 이 시기에 책자형 책의 등장으로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 재독하기가 편리해져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 방법이 가능해졌다. 18세기 중반 인쇄술의 발달로 다독이 등장하였고, 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가 발달했다. 20세기 후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자 검색형 독서(㉢)로 불리는 독서 방식이 등장하는데, 이 때 독자들은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 29) **답 ②** [세부적 내용 이해]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는 음독 중심의 독서 방식이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두루마리 책을 대체하여 책자형 책이 등장하면서 책의 여백에 주석을 달 수 있고, 앞부분을 재독하기도 쉬워져 목독의 확산을 도왔다. **답 ①** 인쇄술의 발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만이 독서 대상이었고, 이것은 당연히 정독해야 하는 필독서로서의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답 ③** 음독의 독서 방식 시대에는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들이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목독의 시대가 되면서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등장할 수 있었다. **답 ④**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를 사용하면 이어 쓰는 표기법에 비해 문장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가독성이 높다. **답 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 30) **답 ①** [반응의 적절성]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쉬워졌다. 독자는 어디까지나 주체적 사용자로, 원하는 대로 필요에 의해 정보를 고를 수 있고 텍스트를 조합할 수도 있는 검색형 독서 방식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과 같이 목독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독 시대처럼 꼼꼼하게 읽는 분석적 읽기 방법 보다는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해졌다. **답 ②**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원전 텍스트라는 개념은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답 ③** 독자의 필요에 의해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다른 텍스트에 추가할 때, 원 저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표절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답 ④** 종이 책으로만 존재했던 자료들이 전자 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는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답 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보 처리적 읽기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